

##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

채 지 은<sup>1)</sup>

박 정 윤<sup>†</sup>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이성교제 중인 20-29세 성인 19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이성교제 기간이 이성관계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을 충족하는 것이 이성관계 헌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자기은폐가 이성관계 헌신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졌다.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 헌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은폐를 낮추고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려는 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 헌신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의 근거를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초기 성인기,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 이성관계 헌신

---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박정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736, E-mail: [pjy4838@cau.ac.kr](mailto:pjy4838@cau.ac.kr)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주요한 인생의 구조를 설계하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Arnett, 2004). Erikson (1959)은 성인기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넓혀가는 시기로 보고, 그중에서도 초기 성인기의 친밀감 획득이 개인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타인에 대한 깊은 관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관계 맺는 대상이 연인과 친구로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성관계는 이성과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남녀의 낭만적인 관계로(Sippola, 1999),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부터 결혼 전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성교제는 성인기의 친밀감 획득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이성교제는 개인의 인격적 성숙과 안녕감에 가까워지게 하며(김나영, 2013), 배우자 선택 및 결혼 이후의 부부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남에 따라(Koball, Moiduddin, Henderson Goesling, & Besculides, 2010), 초기 성인기의 건설적인 이성교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초기 성인기의 원만하지 못한 이성관계는 다양한 심리적, 관계적 문제를 야기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Flett, Hewitt, Shapiro, & Rayman, 2001, Sippola, 1999), 현재까지의 이성교제 관련 연구는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유성경, 임인혜, 2020; 이수아,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해 이들의 건강한 이성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초기 성인기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성관계가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이성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Uysal, Lin, Knee, & Amber, 2012; Tran & Simpson, 2009; Fletcher, Simpson & Thomas, 2000), 본 연구는 이성관계 현신에 주목하였다. 이성관계 현신은 이성교제 파트너에게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경향으로 관계 유지 및 지속 의도를 의미한다(Rusbult, 1983). 이성관계 현신은 개인이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약속 및 맹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커플 관계에서의 애착 정도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현재의 관계 안정성부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성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이성관계 현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애착, 투자 정도와 같은 관계적 특성의 영향력에 집중되어왔다. 이 중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던 주제 중 하나는 애착이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이성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현신을 보인 반면, 불안 혹은 회피 애착을 형성한 이들은 연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 낮은 현신으로 이어졌다(Etcheverry, Le, Wu, & Wei, 2013; Schindler, Fagundes, & Murdock, 2010). 이성관계 현신은 투자 정도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투자 정도란 이성관계의 상호작용을 보상과 비용의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한 것이다(Rusbult, 1983). 서로가 이성교제를 위해 들인 시간, 노력 등의 심리적·물질적 기여는 현신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rina et al., 2011; Rusbult, Agnew, & Ariaga, 2011), 투자의 크기가 클수록 이성관계 현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성관계 헌신에 대한 연구는 연인 간의 관계적 측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 어온 반면 이성교제 당사자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탐색은 적었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이성관계의 지속 및 해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Simpson, 1987),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성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측면으로 자기은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자신을 과도하게 숨기려고 하거나, 가족의 비밀, 애도, 자신에 대한 강렬한 부정적 생각, 불행, 질병 등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까지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데(Karpel, 1980; Saffer, Sansone, & Gentry, 1979; Evans, 1976; Larson & Chastain, 1990에서 재인용), Larson과 Chastain(1990)은 이와 같이 자신이 부정적이라 인식하는 감정, 사고, 경험 등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숨기는 경향성을 자기은폐(self-concealment)라고 하였다. 자기은폐는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관계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Kelly & Yip, 2006; Masuda, Boones, & Timko, 2011).

자기은폐를 위한 노력은 그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부담을 초래하여(Larson & Chastain, 1990), 사회불안, 우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Wegner & Erber, 1992),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 외로움을 높여 관계의 질을 낮출 수 있다(Kelly, 1998, Hill, Thompson, Coger, & Denman 1993). 부부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 혹은 배우자의 자기은폐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거나 부부가 특정 주제에 대해 회피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신뢰가 낮아지고 서로 간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nkenauer, Kerkhof, Righetti, & Branje, 2009; Finkenauer, Hazam, 2000). 또한, 성인들의 관계에서의 진정성은 이성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는 태도를 증가시켰는데(Brunell et al., 2010), 진정성은 자기은폐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자기은폐가 이성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헌신을 낮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적으며, 연구의 대상도 기혼 부부에 비해 미혼 남녀의 자기은폐가 이성관계에 주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였다(Finkenauer, Kerkhof, Righetti, & Branje, 2009; Finkenauer, Hazam, 2000). 초기 성인기의 건강한 적응에 이성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가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은폐는 개인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른 요인들에 선행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suda, Boones, & Timko, 2011; Kelly, 2002). Kelly(2002)는 자기은폐가 낮은 웰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기은폐의 인지적 억제과정이 자신의 사고 및 행동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의 안녕감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은폐는 개인의 감정, 생각, 행동, 대인관계 등의 생활 전반을 조절해나면서 주체적 삶을 영위해가도록 하는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충족을 저해하게 되고, 자기은폐와 기본심리욕구 충족 간의 관계가 안녕감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기본심리욕구란 한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과 성장경향성을 적절하게 발휘해 인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선천적 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하위개념을 포함한다(Deci & Ryan, 2000). 자율성은 개인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유능성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관계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연결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은폐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매개로 다양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애, 2011; Uysal & Lu, 2011; Uysal, Lin, & Knee, 2010).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은폐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매개로 삶의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Uysal, Lin, & Knee, 2010), 성인의 일상에서의 자기은폐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매개로 매일의 긍정정서와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김정애, 2011), 만성적인 자기은폐 성향에 더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기은폐 수준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은폐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관계는 이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자기은폐를 보이는 사람들은 개인의 사적 의견은 숨긴 채 외부 기준에 적합하다 여겨지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자율성 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Uysal, Lin, & Knee, 2010), 유능성, 관계성 욕구의 충족도 저해되어(Deci & Ryan, 2000), 이성관계에서도 자신이 돌봄과

수용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해 이성관계에서의 낮은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윤미, 2011). 또한, 개인의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성관계 몰입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Uysal, Lin, Knee, & Amber, 2012), 자기은폐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매개로 현재의 이성관계에 대한 헌신을 감소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자기은폐가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나 이들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자기은폐로 인해 이성관계 헌신이 낮아진 성인들에게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연계한 상담적 개입 방안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자기은폐는 이성관계 헌신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이성관계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료는 본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 설명문을 읽고 연구자료 활용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총 210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수집된 자료 중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대상자 5명, 연령에 맞지 않는 대상자 8명을 제외하여 총 19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자기은폐

자기은폐를 측정하기 위해 Larson과 Chatain (1990)이 개발한 자기은폐 척도(Self-Concealment Scale)를 김정애(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은폐 척도는 총 10문항의 단일 차원이며, 개인의 은폐경향성, 사적 정보의 소유 여부, 사적 정보의 누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은폐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30이었다.

####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Deci와 Ryan (200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질문지에 근거

하여, 이명희(2008)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김유진(201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변인 별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범위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61이며, 자율성의 Cronbach's  $\alpha$ 는 .888, 유능성의 Cronbach's  $\alpha$ 는 .907, 관계성의 Cronbach's  $\alpha$ 는 .942이었다.

#### 헌신

헌신을 측정하기 위해 Rusbult 등(1983)이 연인 관계의 지속이나 상실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한 투자모델척도(Investment Model Scale)의 헌신 문항을 이정은(2007)이 번안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헌신 척도는 관계유지를 위한 헌신(5문항), 대안 평가절하(2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헌신 척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헌신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5이며, 관계유지를 위한 헌신의 Cronbach's  $\alpha$ 는 .893, 대안 평가절하의 Cronbach's  $\alpha$ 는 .732이었다.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 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 결 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114명(57.9%), ‘남자’가 83명(42.1%)으로 ‘여자’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평균 25.24세( $SD=2.70$ )였으며, ‘24-26세’가 80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27-29세’ 66명(33.5%), ‘20-23세’ 51명(25.9%)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06명(53.8%),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4명(42.6%), ‘대학원 졸업 이상’이 7명(3.6%)으로 ‘대학교 졸업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학생’이 111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이 47명(23.9%), ‘판매, 서비스 및 기술직’ 19명(9.6%), ‘무직’ 16명(8.1%), ‘자영업’

4명(2.0%)이 뒤를 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16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63명(32.0%), ‘천주교’ 12명(6.1%), ‘불교’ 6명(3.0%)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황은 ‘중’이 134명(68.0%)으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중’으로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상’이 20명(10.2%), ‘하’가 43명(21.8%)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이성교제 지속기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1명(31.0%), ‘1년 이상-2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의 이성교제 횟수는 ‘2회’인 이들이 62명(31.5%), ‘1회’가 53명(26.9%), ‘5회 이상’이 32명(16.3%), ‘3회’가 32명(16.2%), ‘4회’가 18명(9.1%)으로, ‘1회’, ‘2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기술통계

본 연구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그리고 첨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변인들의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자기은폐는 5점 만점 중 1.00-4.80점,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6점 만점 중 1.44-6.00점, 이성관계 헌신은 4점 만점 중 1.29-4.00점이었으며,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정상 기준에 포함되어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은폐의 경향성은 5점 만점 중 2.56점( $SD=1.06$ )이었다.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전체 경향성은 6점 만점 중 4.44점( $SD=1.04$ )이었으며,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자율성 4.54점( $SD=1.12$ ), 유능성 4.08점( $SD=1.11$ ), 관계성 4.70점( $SD=1.12$ )이었다. 이성관계 헌신의 전체 경향성은 4점 만점 중 3.08점( $SD=.78$ )이었고, 하위변인으로는 관계 유지를 위한 헌신이 3.08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197)

	변인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3	42.1
	여자	114	57.9
연령 (M=25.24, SD=2.70)	20세 이상-23세 이하	51	25.9
	24세 이상-26세 이하	80	40.6
	27세 이상-29세 이하	66	33.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4	42.6
	대학교 졸업	106	53.8
	대학원 졸업 이상	7	3.6
직업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111	56.3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	47	23.9
	판매, 서비스 및 기술직	19	9.7
	자영업	4	2.0
	무직	16	8.1
종교	기독교	63	32.0
	천주교	12	6.1
	불교	6	3.0
	무교	116	58.9
주관적 경제상황	상	20	10.2
	중	134	68.0
	하	43	21.8
현 이성교제 지속기간	6개월 미만	28	14.2
	6개월 이상-1년 미만	61	31.0
	1년 이상-2년 미만	43	21.8
	2년 이상-3년 미만	27	13.7
	3년 이상	38	19.3
이성교제 횟수	1회	53	26.9
	2회	62	31.5
	3회	32	16.2
	4회	18	9.1
	5회 이상	32	16.3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N=197)

영역		M(SD)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자기은폐		2.56(1.06)	1.00	4.80	.26	-1.22
기본심리 육구총족	자율성	4.54(1.12)	1.33	6.00	-1.07	.30
	유능성	4.08(1.11)	1.33	6.00	-.72	-.09
	관계성	4.70(1.12)	1.50	6.00	-1.28	.96
전체		4.44(1.04)	1.44	6.00	-1.24	.90
이성관계 헌신	관계 유지를 위한 헌신	3.08(.78)	1.20	1.00	-.71	-.62
	대안 평가절하	3.08(.83)	1.00	4.00	-.57	-.83
전체		3.08(.75)	1.29	4.00	-.71	-.60

점( $SD=.78$ ), 대안 평가절하는 3.08점( $SD=.83$ )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성관계 헌신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r=.25, p<.05$ ), 종교( $r=.16, p<.05$ )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기간이 길수록 이성관계에 더욱 헌신할 가능성이 크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이성관계 헌신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관계 헌신은 기본심리육구의 하위변인인 자율성( $r=.55, p<.01$ ), 유능성( $r=.58, p<.01$ ), 관계성( $r=.67, p<.01$ )과 정적상관이 나타나, 개인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을 느낄수록, 관계에서 정서적 연결감, 소속감을 가질수록 현재의 이성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와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성관계 헌신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최종학력( $r=-.19, p<.01$ )과 주요 변인인 자

기은폐( $r=-.54, p<.01$ )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개인의 정보를 숨기려는 경향이 적을수록 이성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인인 자기은폐는 기본심리육구의 하위변인인 자율성( $r=-.62, p<.01$ ), 유능성( $r=-.55, p<.01$ ), 관계성( $r=-.62, p<.01$ )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숨기려고 할수록 삶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잘하는 것이 적다고 여기며, 주변에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은폐, 기본심리육구 총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 Model에서의 변인 간의 공차한계는 모두 .10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는 1.09-4.30으로 다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0으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1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4	1											
3	.18*	-.62**	1										
4	-.02	.51**	-.56**	1									
5	-.02	.08	-.13	-.07	1								
6	-.01	.10	-.08	-.03	.25**	1							
7	-.10	.30**	-.22**	.28**	-.04	-.05	1						
8	-.14	.42**	-.33**	.22**	-.04	.10	-.22**	1					
9	-.05	-.12	.09	-.11	-.11	-.29**	-.11	-.05	1				
10	-.16*	.18*	-.13	.08	-.03	.20**	.16*	.23**	-.62**	1			
11	-.06	.19**	-.16*	.11	.06	.29**	.17*	.18*	-.55**	.81**	1		
12	-.27**	.21**	-.18*	.08	.12	.30**	.10	.23**	-.62**	.79**	.77**	1	
13	-.02	.25*	-.19**	.08	.16*	.24**	.17*	.11	-.54**	.55**	.58**	.67**	1

\*  $p < .05$ , \*\*  $p < .01$  \*\*\*  $p < .001$

주. 1) 성별: 여=0, 남=1, 2) 연령, 3) 최종학력, 4) 직업: 무=0, 유=1(학생을 포함), 5) 종교: 없음=0, 있음=1, 6) 주관적 경제수준, 7) 이성교제 기간, 8) 이성교제 횟수, 9) 자기은폐, 10) 자율성, 11) 유능성, 12) 관계성, 13) 이성관계 헌신

귀 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Model I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4.45$ ,  $p<.001$ ). Model I의 전체 설명력은 12.3%였으며, 이성교제 기간( $\beta=.21$ ,  $p<.05$ )로 나타나, 이성교제 기간이 길수록 현재의 이성교제를 오래 지속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II는 Model I에 자기은폐를 투입한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62.39$ ,  $p<.001$ ). Model II의 전체 설명력은 33.9%로 자기은폐의 영향력이 포함되었을 때

의 설명력이 높게 증가하였다. 이성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은폐( $\beta=-.49$ ,  $p<.001$ ), 연령( $\beta=.05$ ,  $p<.05$ ) 이성교제 기간( $\beta=.15$ ,  $p<.05$ )으로 Model I에서 유의했던 통제 변인이 동일하게 유의하였고, 자기은폐가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 깊고 현재 파트너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III은 Model II에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변인을 투입한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 $F=21.17$ ,  $p<.001$ ), 전체 설명력은 50.1%로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성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계성( $\beta=.54$ ,  $p<.001$ ), 자기은폐( $\beta$

표 4.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 (N=197)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beta$	<i>t</i>	$\beta$	<i>t</i>	$\beta$	<i>t</i>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sup>1)</sup>	.03	.46	.00	-.00	.12*	2.13
	연령	.15	1.55	.05*	1.78	.12	1.66
	최종학력	-.05	-.51	-.06	-.67	-.05	-.69
	직업 <sup>2)</sup>	-.10	-1.18	-.14	-1.92	-.11	-1.67
	종교 <sup>3)</sup>	.09	1.20	.06	1.02	.05	.89
	경제수준	.19	1.74	.05	.86	-.02	-.31
	이성교제 기간	.21*	2.60	.15*	2.17	.11	1.88
	이성교제 횟수	.12	1.43	.09	1.29	-.00	.01
자기은폐			-.49***	-7.90	-.17*	-2.42	
기본심리 욕구충족	자율성				-.09	-.86	
	유능성				.12	1.19	
	관계성				.54***	5.48	
상수		1.74		4.15		1.22	
$R^2$		.16		.37		.53	
<i>adj R</i> <sup>2</sup>		.12		.34		.50	
<i>F</i>		4.45***		62.39***		21.17***	

\*  $p < .05$ , \*\*  $p < .01$  \*\*\*  $p < .001$

주. 1) 성별: 여=0, 남=1, 2) 직업: 무=0, 유=1, 3) 종교: 없음=0, 있음=1

=-.17,  $p < .05$ ), 성별( $\beta=.12$ ,  $p < .05$ ) 순으로, 관계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헌신이 높아졌고, 남자 집단에서 헌신이 높았다. 이성관계 헌신에 가장 높은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관계성이었는데, 개인이 평소 타인과 감정,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이성관계에 대한 애착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요 변인인 자기은폐도 이성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태도가 이성관계에서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방해하여 관계 지속 의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성별이 이성관계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 더욱 많은 헌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자기은폐는 이성관계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 $B=-.38, p<.001$ ), 자기은폐가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자기은폐가 기본심리욕구 충족( $B=-.63,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 자기은폐가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 $B=-.14, p<.01$ ), 기본심리욕구 충족( $B=.37, p<.001$ )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충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자기은폐는 이성관계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B=-.38, p<.001$ ), 자기은폐가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자기은폐가 자율성( $B=-.66, p<.001$ ), 유능성( $B=-.58, p<.001$ ), 관계성( $B=-.65,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자기은폐가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B=-.14, p<.01$ ), 관계성

표 5.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N=197)

	독립변인	중속변인	B	se	t	F	R <sup>2</sup>
1	자기은폐	이성관계 헌신	-.38	.04	-8.94***	79.90***	.54
2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	-.63	.05	-11.75***	138.12***	.64
3	자기은폐	이성관계 헌신	-.14	.05	-3.00**	77.20***	.44
	기본심리욕구 충족		.37	.05	7.29***		

\*  $p < .05$ , \*\*  $p < .01$  \*\*\*  $p < .001$

표 6.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 하위요인의 다중매개효과 (N=197)

	독립변인	중속변인	B	se	t	F	R <sup>2</sup>
1	자기은폐	이성관계 헌신	-.38	.04	-8.94***	79.90***	.54
		자율성	-.66	.06	-11.14***	124.15***	.62
		유능성	-.58	.06	-9.23***	85.09***	.55
2	자기은폐	관계성	-.65	.06	-10.97***	120.36***	.38
		자기은폐	-.14	.05	-2.98**	45.18***	.49
		자율성	-.07	.07	-1.07		
		유능성	.10	.06	1.62		
관계성	.34	.06	5.49***				

\*  $p < .05$ , \*\*  $p < .01$  \*\*\*  $p < .001$

( $B=.34, p<.001$ )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반면 자율성과 유능성은 이성관계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성의 영향력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로 설정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자기은폐가 기본심리욕구 충족 전체를 매개로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는  $-.24$ 였으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은폐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하위변인을 매개로

헌신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관계성의 간접효과 계수는  $-.22$ 이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관계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자율성, 유능성을 경유한 간접효과의 경우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성인기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표 7.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 $N=197, Bootstrap=5000$ )

간접 효과	B	BootSE	95% CI	
			LLCI	ULCI
자기은폐 -> 기본심리욕구 충족 -> 이성관계 헌신	-.24	.05	-.33	-.14
자기은폐 -> 자율성 -> 이성관계 헌신	.05	.05	-.05	.15
자기은폐 -> 유능성 -> 이성관계 헌신	-.06	.04	-.14	.01
자기은폐 -> 관계성 -> 이성관계 헌신	-.22	.05	-.3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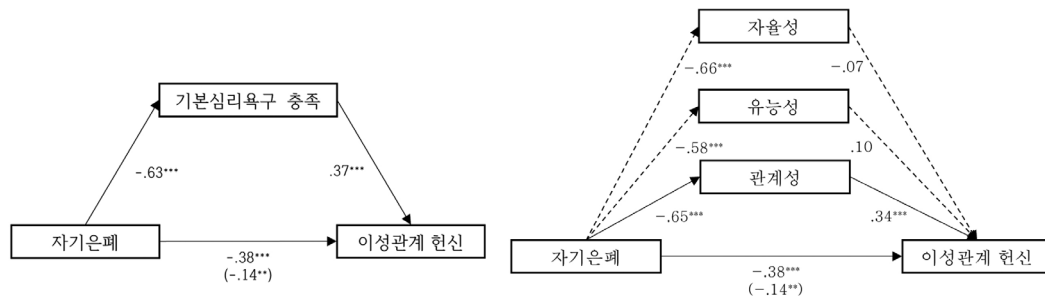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모형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이성교제 기간이 이성교제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헌신이 높은 결과는 남성이 이성교제에 더욱 헌신적이고, 관계에서의 책임감을 많이 가진다는 선행연구(정혜원, 2019; 이지연, 정태연, 2007)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20대 성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이성교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헌신 정도가 커졌는데, 초기 성인기의 주요과업 중 하나가 결혼이라는 점에서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결혼의향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박혜민, 2017; 김중백, 2013)가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성인들은 연령이 높아지고 이성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제하는 파트너와의 결혼 생각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이성교제를 잘 유지해가고자 하여 헌신이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자기은폐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은폐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하위변인인 관계성이 이성관계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숨김으로써 현재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을 낮추고 장기적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Uysal, Knee, & Amber, 2012; Brunell et al., 2010; Kelly, 200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초기 성인들은 자기은폐가 높을수록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관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억제하는 방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김형란, 2021; Kelly, 2002), 교제 중인 파트너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들은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이 저하되고, 관계에 대한 막

연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높은 자기은폐로 인해 이성관계에서의 불안, 친밀감 감소가 지속되면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줄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어질 수 있다. 이성교제에 투자한 노력의 정도는 이성관계 헌신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Orina et al., 2011) 이성관계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이성관계 헌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표현을 적게할수록 관계를 결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진다는 연구(표승연, 2011)와도 유사한 결과로, 초기 성인들의 이성관계 헌신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기은폐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은폐를 낮추어 이성관계 헌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내 적절한 자기노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은폐를 보이는 초기 성인들에게 자신을 감추려는 태도가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교육하고,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정, 생각을 드러내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해나갈 수 있도록 개입한다면 자기은폐 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기은폐 개입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으로, 추후 자기은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치료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관계성은 이성관계 헌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관계성이 이성관계 헌신을 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들(이윤미, 2011;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Sheldon, Elliot Kim, & Kasser, 2001)과도 유사하

여 이성관계 헌신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성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성이 충족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원만하게 지내는 경험이 만족됨을 의미한다. 평소에 관계성이 충분히 충족된 사람은 이성관계에서도 자신이 사랑받는다 느끼고,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크며, 관계에서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곽소영, 2007;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따라서 개인은 관계성 욕구가 충족될수록 이성교제 유지를 위한 자발적인 동기가 커지게 되어(곽소영, 2007),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성교제에 대한 애착을 키우고 관계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관계 헌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 헌신을 높이기 위해 관계성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관계성의 증진 방안으로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한 관계성 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등장하고 있어(김선주, 2015; 이미식, 이연수, 2015), 초기 성인기의 관계성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관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이해와 타인수용이 중요한데(김선주, 2015; 이미식, 이연수, 2015), 집단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집단원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활동 과정을 통해 집단원들과

의 성공적인 협업 경험을 쌓으며 타인수용을 높일 수 있어 초기 성인들의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이성관계 헌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 성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 내 상담센터나 시도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관계성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한편,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자율성과 유능성은 이성관계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성관계 헌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예측된다. 이성관계 헌신은 이성교제의 안정적 지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Etcheverry, Le, Wu, & Wei, 2013), 헌신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자기주장이나 선호를 절제하고 관계를 위한 선택을 우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성과 능력이 강조되는 자율성과 유능성보다는 관계성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은폐와 이성관계 헌신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전체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하위변인 별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관계성의 매개효과만 유의하였다. 이는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심리욕구가 통합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은이, 2011)와 연결되는 결과로, 이성관계 헌신의 특성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별 매개 경로의 결과가 달랐지만, 기본심리욕구의 통합적인 충족을 통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성인들이 높은 자기은폐로 인해 이성관계 문제를 호소한다면 자기은폐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심리욕구

를 충족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경쟁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초기 성인들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상담 장면에서는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겨 이성교제에서도 자신감이 부족한 내담자들에게 이성교제에서의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지각하고 관계 지속에 대한 기쁨과 동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도와 이성관계 헌신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장면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인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잠재력과 성장 경향성을 충분히 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도 심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메뉴얼화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초기 성인들의 이성관계 헌신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 이성관계 헌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성교제 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커플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는 못했다. 자기은폐는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파트너를 포함시켜 커플의 상호 역동이 반영된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편향성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재 이성교제 중인 20대로, 이들의 자기은폐는 높지 않았고,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이성관계 헌신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각 변인들의 수준이 다른 초기 성인들에게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성교제 중인 이들뿐만 아니라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까지 적은 연구가 진행되어 후속 연구가 필요한 변인들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반면, 이들 변인이 관계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이성교제가 중요한 만큼 건강한 이성교제를 증진할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초기 성인들의 이성관계 헌신에 관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연구들 및 상담 개입장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곽소영 (2007). 이성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만족도: 자율성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13).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 (2015). 고등학생의 개별성-관계성과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실존적 관계맺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3). 삶의 의미추구 및 발견,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 (2011). 자기은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적 심리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및 일일 상태의 위계적 분석(HLM).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67-189.
- 김형란 (2021). 성인애착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차의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민 (2017).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임인혜 (2020).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551-578.
-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식, 이연수 (2015). 대학생용 관계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초등교육, 26(1), 397-412.
- 이수아 (2019). 부부의 개인별 덕목과 부부 덕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1, 1-26.
- 이윤미 (2011).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과 헌신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정태연 (2007). 대학생 데이트 커플의 애정표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15-330.
-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 정혜원 (2019). 성인진입기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 성별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조절된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승연 (2011).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결별의도를 설명하는 통합인과모형의 검증: 조절초점의 부합도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rnett, J. (2004). "Emerging Adulthood."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1(12), 1-8.
- Brunell, A. B., Kernis, M. H., Goldman, B. M., Heppner, W., Davis, P., Cascio, E. V., & Webster, G. D. (2010). *Dispositional authentic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8), 900-905.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 11(4), 227-268.
- Erikson, E. H. (1964).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tcheverry, P. E., Le, B., Wu, T. F., & Wei, M. (2013). *Attachment and the investment model: Predictors of relationship commitment, maintenance, and persistence*. *Personal Relationships*, 20(3), 546-567.
- Finkenauer, C., & Hazam, H. (2000) *Disclosure and Secrecy in Marriage: Do Both Contribute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2), 245-263.
- Finkenauer, C., Kerkhof, P., Righetti, F., & Branje, S. (2009). *Living together apart: Perceived concealment as a signal of exclusion in marital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0), 1410-1422.
- Fletcher, G. J., Simpson, J. A., & Thomas, G. (2000). *The measurement of perceived relationship quality components: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3), 340-354.
- Fletcher, G. J., Simpson, J. A., & Thomas, G. (2000). *The measurement of perceived relationship quality components: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3), 340-354.
- Flett, G. L., Hewitt, P. L., Shapiro, B., & Rayman, J. (2001). *Perfectionism, beliefs, and adjus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Current Psychology*, 20(4), 289-311.
- Hill, C. E., Thompson, B. J., Coger, M. C., & Denman, D. W. (1993). *Beneath the surface of long-term therapy: Therapist and client report of their own and each other's cover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3), 278-287.
- Karpel, M. A. (1980). *Family Secrets: II. Eth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in Therapeutic Management*. *Family Process*, 19(3), 295-306.
- Kelly, A. E. (1998). *Clients' secret keeping in outpatient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50-57.
- Kelly, A. E. (2002). *The psychology of secret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Kelly, A. E., & YIP, J. J. (2006). *Is keeping a secret or being a secretive person linked to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74(5), 1349-1370.
- Koball, H. L., Moiduddin, E., Henderson, J., Goesling, B., & Besculides, M. (2010). *What do we know about the link between marriage and health?* *Journal of Family Issues*, 31(8), 1019-1040.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Masuda, A., Boones, S. M., & Timko, A. C. (2011). *The role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alment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Eating Behaviors*, 12(2), 131-135.
- Orina, M. M., Collins, A. W., Simpson, A. J., Salvatore, E. J., Haydon, C. K., & Kim, S. J. (2011). *Developmental and dyadic perspectives on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cience*, 22(7), 908-915.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01-117.
- Rusbult, C. E., Agnew, C., & Arriaga, X. (2011). *The investment model of commitment Process*. 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s Faculty Publications. Paper 26. retrieved from <http://docs.lib.purdue.edu/psychpubs/26>.
- Saffer, J. B., Sansone, P., & Gentry, J. (1979). *The awesome burden upon the child who must keep a family secre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0(1), 35-40.
- Schindler, I., Fagundes, P. C., & Murdock W. K. (2010). *Predictors of romantic relationship formation: Attachment style, prior relationships, and dating goals. Personal Relationships*, 17(1), 97-105.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 i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25-339.
- Simpson, J. 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683-692.
- Sippola, L. K. (1999). *Getting to Know the "Other":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Other-Sex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407-418.
- Tran, S., & Simpson, J. A. (2009). *Prerelationship maintenance behaviors: the joint roles of attachment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4), 685-698.
- Uysal, A., Lin, H. L., & Knee, C. R. (2010). *The role of need satisfaction in self-concealment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2), 187-199.
- Uysal, A., & Lu, Q. (2011). *Is self-concealment associated with acute and chronic pain?. Health Psychology*, 30(5), 606-614.
- Uysal, A., Lin, H. L., Knee, C. R., & Amber, L. B.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self-concealment from one's partner and relationship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 39-51.
- Wegner, D. M., & Erber, R. (1992).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03-912.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논문 투고일 : 2021. 07. 13  
1 차 심사일 : 2021. 08. 02  
게재 확정일 : 2021. 08. 24

## The Effects of Self-Concealment, Satisfy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Commitment of Romantic Relationship in Early Adulthood

Jieun Chae

Jeong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concealment and satisfaction among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commitment to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alment and the commitment to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on 197 adults aged 20 to 29 who are currently in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v3.5.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ge, and duration of dating period among the subject's demo-social variables significantly impacted the commitment to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Second, satisfying relatedness among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commitment to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and self-concealment negatively affected the commitment to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Third, relatedness from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concealment and the commitment to romantic relationships. It can be seen that it is crucial to lower self-concealment and to satisfy relatedness among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order to promote commitment to romantic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reveal the influence of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commitment to the romantic relationship, and it is significant that it proposed a basis for intervention to promote the commitment to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Key words* : self-concealment, satisfy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 commitment to romantic relationship, early adulthood